



인정 넘치고 아름다운 충남의 알프스,

## 칠갑산 산꽃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남 청양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꽃동네가 있는데, 바로 '칠갑산 산꽃마을'이다.

마치 흰눈이 날리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벚꽃과 울긋불긋 마을 한가득 피어있는 봄꽃으로 옷을 갈아입은 산골마을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언제부터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한해에도 많은 방문객이 찾는 북적북적한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마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장광석 위원장(51세)을 만나러 찾아갔다.

장 위원장은 미소가 아주 매력적이셨다. 알고보니 이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토종 산꽃마을 주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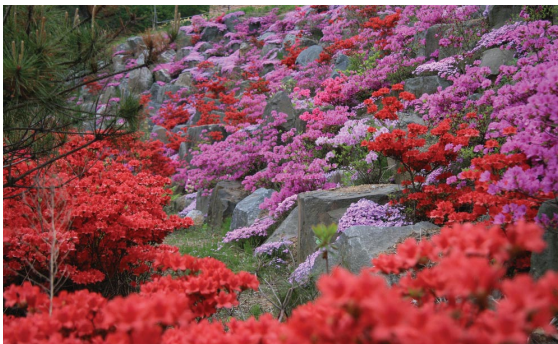


〈칠갑산 산꽃마을 장광석 운영위원장〉

장 위원장은 젊은 시절 군 제대 이후 마을주민들의 인식을 좀 바꿔보면서 생산하는 작목 등을 다양화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런저런 구상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실패만 했다.”면서 “우리 마을이 2004년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어르신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한다며 저를 추진위원장으로 추천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칠갑산 산꽃마을은 밭에서 쇠를 캐내었다고 하여 붙여진 ‘쇠밭’과 길고 큰 밭이 있다하여 붙여진 ‘넓은밭’, 2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아름다운 벚꽃길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고향의 향수를 담아 꽃이란 테마를 통해 산촌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칠갑산의 명성을 살려 ‘칠갑산 산꽃마을’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울긋불긋 아름답게 피어난 산꽃마을 풍경〉



마을을 둘러보니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일단 총41가구 96명의 마을주민이 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이 마을로 귀농귀촌한 7가구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방문객을 맞이할 다양한 시설과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요 시설로는 방문객 숙박동(35평 1동, 20평 1동, 7평 4동), 식당(실내 40평, 야외 몽골천막 6동), 교육장(40평, 음향시설 완비), 체험장(야생화전시장, 연꽃단지, 물탕골, 고산굴, 표고버섯재배사 등) 등이 있다.



〈산꽃마을의 다양한 시설 및 체험장 모습〉

특히 산꽃마을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꽃사탕 만들기’ 체험은 식용꽃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사탕을 만들어보는 인기 만점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야생화전시장에서는 야생화 화분만들기 체험을 통해 집에서도 마을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절마다 산나물 뜯기, 화전 만들기, 밤줍기, 표고버섯 수확하기, 고추따기 등 다양한 농사체험을 비롯,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물탕골술 체험과 사랑을 확고히 맺어준다는 고산굴체험도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야생화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야생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고 화분만들기체험도 가능하다〉

필자가 찾은 날엔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봉사활동에 나선 기관이 방문해 더욱 활기를 띠었고, 하루 동안 농사일도 돕고 야생화전시관에 들러 화분만들기 체험도 가졌다.

장 위원장은 “2005년 산촌생태마을,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이후 마을 주민들은 달라졌어요. 물론 힘들었죠. 많은 교육과 견학, 주민과 같이 하는 행사, 주민회의 등을 통해 마을사업의 필요성도 서로 알아가게 되고 합심해서 참여하기에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계절은 역시 봄이었지만 주로 4월부터 10월이 가장 바쁘다고 한다. 연간 15,00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약 2억원의 매출이 생긴다고 한다.



장 위원장은 “그래도 매년 체험객 방문이나 특산물 판매(토종별꿀, 알밤, 고추, 표고버섯 등)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콩시범마을로 선정되면 콩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무엇보다 주민들의 농업작목을 꽃과 관련된 부가가치 높은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도 했다.

이곳 산꽃마을은 방문객이 하룻밤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 그리고 주변에 관광코스도 다양해서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필자가 장 위원장에게 살짝 물어보았다. 좋은 1박 2일 코스 좀 소개시켜달라고 말이다. 그랬더니 먼저 산꽃마을-장곡사-칠갑산-출렁다리 등의 여유로운 코스와 산꽃마을-장곡사-고추문화마을-고운식물원-천문대-칠갑산-출렁다리 등 활동적인(?) 코스를 알려 주셨다. 그러면서도 그냥 산꽃마을에서 조용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강추(?)하셨다.

## ● 인정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

장 위원장은 산꽃마을을 한마디로 “인정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위원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마을주민의 행복을 위해 소신껏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을주민만을 생각하면 다 가능할 것이라

단순히 한국의 아름다운 길 주변마을에서 그 아름다운 길을 마을 입구로 만들어버린 칠갑산 산꽃마을의 힘은 바로 마을주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외부의 도움보다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는 참 예쁜 마을이다. 적어도 필자는 이 마을을 매년 방문해보고 싶은 맘이니까 말이다.



▶ 홈페이지 : [www.sankkot.com](http://www.sankkot.com)

The Ch ungnam Review 2013 . 09  $\frac{3}{12}$  | 53